



제목	The Persian Army 560-330 BC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sprey Publishing
발행일	1992. 9. 25.
저자	Nicholas Sekunda, Simon Chew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64
ISBN 또는 ISSN	978-1855322509

내용 요약

고대 페르시아 사회는 ‘봉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아자타(azata, 귀족), 반다카(bandaka, 평민), 마리아카(mariaka, 노예)로 이루어졌다. 군 복무는 의무였으며 이는 아자타와 반다카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군 면제는 오직 왕만이 허락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 소년은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접촉을 삼가 했고 집안의 여성들에 의해 길러졌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기마술과 궁술,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법을 배웠다. 진실을 중시하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Strabo)에 의하면 군복무 및 훈련은 20세에서 24세까지, 즉 4년간 이뤄졌다고 한다. 군복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그들은 제대를 했지만, 50세까지 예비군으로 남아있었다. 페르시아 군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병사는 페르세폴리스의 부조에 묘사된 왕을 위한 1만 명의 친위대, ‘이모탈(Immortal)’이다. 이들은 주로 징집병들 중에서 무예에 뛰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이 ‘이모탈’, 즉 ‘불멸자’인 이유가 예비부대를 통해 전투 중에도 계속해서 인원을 충당해 1만 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조사는 여전히 유년기 상태에 불과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른 모든 모습과 마찬가지로 궁정과 군대의 복식은 엘람, 메소포타미아, 메디아 등에게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